

2020년5월5일

교구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조치 (제 7차)

+ 주님의 평화

긴급사태선언이 전국적으로 5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오사카후와 효고켄은 특별 경계지역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5월 31일(일)까지 공개미사는 중지합니다. 미사 이외의 여러 행사나 강좌 등에 관해서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중지를 부탁드립니다.
2. 교구주최의 5월·6월의 회의와 행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5월 20일(수)사제평의회 또는 성유축성미사

주교좌 성당(타마츠클리)에서 10시부터 사제평의회를 개최하고, 평의회에 출석하는 성직자만 11시부터 성수유미사(비공개)를 진행합니다. 성직자는 장백의와 영대(백)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컨디션과 이동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분은 참석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12시에 점심(도시락)을 전달합니다. 또한 금경축사제의 축하행사는, 후일 또는 내년으로 연기합니다.
 - b) 5월27일(수) 월모임(카부토야마 묘지미사) : 중지
 - c) 6 월 3 일 (수) 자문 위원회: 10 시부터 대주교관에서 개최
 - d) 6 월 16 일 (화) ~ 17 일 (목) 교구사목연수회: 중지
 - e) 6 월 17 일 (수) 지역 장 및 위원장 회의: 중지
 - f) 6 월 28 일 (일) 본당 선교 사목 평의회: 중지
3. 성사집전 (세례, 성찬, 고해, 병자성사 등)에 관해서는 본당의 책임 사제에게 일임합니다.

4. 결혼식과 장례식은 충분한 감염 대책을 준비한 후,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5. 공개미사 중지기간 동안, 오사카교구의 모든 신자에게 주일 미사의 의무를 관면합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거나, 묵주기도를 할 시간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6. 사목 담당자 여러분은, 직접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후 알림은 비상사태선언의 종료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 주요 외국어 번역판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